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어린이/어버이주일]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532장 다같이

1. 주께로 한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2. 주께로 한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네 죄를 사하리
 3. 주께로 한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네 마음 정하라
 4. 주께로 한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 (후렴) 한걸음씩 한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마가복음 2:1-12 인도자

설 교 “지붕 뚫기”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부모와 자녀, 부부 간의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2.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여 열매 맺는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3. 기근, 질병, 전쟁으로 고통 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가정예배

[스승의 주일]

2023년 5월 14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미4:2)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기쁜 주님의 날, 우리 모두를 평안과 안식의 자리로 불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사 하늘의 문을 여시어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소서. 찬양할 때에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낙심한 영혼은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고통 중에 있는 영혼, 병든 영혼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보듬으셔서 이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532장 다같이

1. 주께로 한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2. 주께로 한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네 죄를 사하리
 3. 주께로 한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네 마음 정하라
 4. 주께로 한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 (후렴) 한걸음씩 한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기 도 가족 중

1

지붕 뚫기

마가복음 2:1-12

2

성경봉독 마가복음 2:1-12 인도자

1. 수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4.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6.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설 교 『 지붕 뚫기 』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부부와 자녀, 부모와의 관계 안에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2.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3. 전쟁과 기근, 질병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4. 헌금안내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근거지였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하인의 치유,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축사 등 기적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지금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하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미국 의사의 55%가 환자에게서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결

지붕 뚫기

마가복음 2:1-12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근거지였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하인의 치유,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축사 등 기적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지금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하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미국 의사의 55%가 환자에게서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결과를 보았다고 하고, 의사 3/4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기적 발생은 전혀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리처드 퍼틀 교수는 “기적이란 역사 속에 활동해 오신 하나님을 보여 줄 목적으로 평소의 자연 질서에 한시적으로 예외가 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행하시는 사건이다”라고 했다. ▶마가복음 2:1-3:6까지 예수님과 종교지도자 간의 5개 논쟁 기사가 나오는데, 본 기사는 첫 번째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우리 모두는 중풍병자처럼 자기만의 침상에 누워 있다. 질병, 빈곤, 무력감, 콤플렉스, 상처, 약점, 우울증, 실패, 죄책감. 이것은 자기 노력으로 해결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것들이다. 이에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 인도했다. 병자의 요청이었을까 친구들의 제의였을까? ▶하지만 장애를 만났다. 우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위기이자 시험이기에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 한계선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고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지 못한 이유는 무리의 종다함 때문일 수도, 사회의 편견과 멸시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를 핑곗거리로 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핑계 대봐야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감정 따라 살지 말고, 할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하므로 상황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보고 발을 높이 차라. 친구들이 생각해 낸 것은 예수님 계신 곳의 지붕을 뚫고 침상째 병자를 내리는 것이다. 인생에는 장애물이 참으로 많다. 산 넘어 산이다. 당신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들은 굳은 믿음으로 이를 극복해 냈다. 믿음이 의심보다 강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이 장애물보다 높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당신이 중풍병자의 가족이라면, 아니 가족 없는 혈혈단신의 친구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고 그곳에 그를 데리고 갈 것이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성품과 능력으로 능히 그를 고쳐 주실 것이었다. 한 사람은 약하지만 네 사람이 함께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중풍병자는 손발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를 위한 8개의 발과 팔이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때로 위험하기도 했다. 집주인의 재산 손실, 예수님 사역 방해, 저주와 원성의 리스크를 안았지만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섰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다. 믿음은 무형의 것이지만 행위를 통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함께 하는 믿음, 집단 믿음, 돕는 자들의 믿음, 중보 믿음이었다. 이에 예수님은 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는 병의 원인이 죄로부터 기인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병보다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어 주셨다. 예수님에게는 성부 하나님과 같이 사죄의 권세가 있음이 논쟁 과정에서 암시된다. 그뿐인가? 예수님께는 질병 치유의 권세도 있으셨다. 예수님은 그를 영적으로 사죄하여 구원하셨고 즉시로 육신적인 구원으로 질병 치유도 주셨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갔다. 이는 그의 구원의 외적 증거였다. 구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다. 근원적 치유를 하셨다. 이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적의 발생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그 사랑과 기적을 믿어라.

3

과를 보았다고 하고, 의사 3/4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기적 발생은 전혀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리처드 퍼틀 교수는 “기적이란 역사 속에 활동해 오신 하나님을 보여 줄 목적으로 평소의 자연 질서에 한시적으로 예외가 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행하시는 사건이다”라고 했다. ▶마가복음 2:1-3:6까지 예수님과 종교지도자 간의 5개 논쟁 기

4

사가 나오는데, 본 기사는 첫 번째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우리 모두는 중풍병자처럼 자기만의 침상에 누워 있다. 질병, 빈곤, 무력감, 콤플렉스, 상처, 약점, 우울증, 실패, 죄책감. 이것은 자기 노력으로 해결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것들이다. 이에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 인도했다. 병자의 요청이었을까 친구들의 제의였을까? ▶하지만 장애를 만났다.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위기이자 시험이기에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 한계선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고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지 못한 이유는 무리의 중다함 때문일 수도, 사회의 편견과 멸시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를 핑곗거리로 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핑계 대봐야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감정 따라 살지 말고, 할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하므로 상황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보고 발을 높이 차라. 친구들이 생각해 낸 것은 예수님 계신 곳의 지붕을 뚫고 침상째 병자를 내리는 것이다. 인생에는 장애물이 참으로 많다. 산 넘어 산이다. 당신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들은 굳은 믿음으로 이를 극복해 냈다. 믿음이 의심보다 강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이 장애물보다 높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당신이 중풍병자의 가족이라면, 아니 가족 없는 혈혈단신의 친구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고 그곳에 그를 데리고 갈 것이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성품과 능력으로 능히 그를 고쳐 주실 것이었다. 한 사람은 약하지만 네 사람이 함께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중풍병자는 손발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를 위한 8개의 발과 팔이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때로 위험하기도 했다. 집주인의 재산 손실, 예수님 사역 방해, 저주와 원성의 리스크를 안았지만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섰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다. 믿음은 무형의 것이지만 행위를 통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함께 하는 믿음, 집단 믿음, 돕는 자들의 믿음, 중보 믿음이였다. 이에 예수님은 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는 병의 원인이 죄로부터 기인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병보다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어 주셨다. 예수님에게는 성부 하나님과 같이 사죄의 권세가 있음이 논쟁 과정에서 암시된다. 그뿐인가? 예수님께는 질병 치유의 권세도 있으셨다. 예수님은 그를 영적으로 사죄하여 구원하셨고 즉시로 육신적인 구원으로 질병 치유도 주셨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갔다. 이는 그의 구원의 외적 증거였다. 구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다. 근원적 치유를 하셨다. 이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적의 발생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그 사랑과 기적을 믿어라.